

치 사

오늘 가을이 깊어가는 중추의 계절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단체 대표자들을 격려
하기 위해 먼 길을 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불교복지계 스님들과
사회복지법인 대표, 시설장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비실천의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불교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

현대사회의 사회복지 활동은 빈부의 격차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중세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고 전업 노동자들이 출현하면서 본격화 되었고, 사회적응 능력이 없는 빈민이나 병자들을 구호하는 일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전까지는 종교단체의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의 복지사업이 특정계층만을 위한 소극적 활동에 머무른 반면 20세기에 들어서서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복지의 1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식하고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기능주의적이고 소극적 차원의 복지수준에 머무르다 최근에 이르러 정부가 복지국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복지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4대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분야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 지출의 제한적 요소 때문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런 경향에 따라 전반적인 복지사업에 민간의 복지사업과 전국민적 참여가 필연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민간 종교단체, 시민들의 능동적인 복지활동 참여가 없다면 우리사회 발전은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교계도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어, 근간에는 선교차원으로 복지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던 타종교계의 활동에 뒤지지 않을 만큼 활동량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 분야에
있어서는 불교가 타 종교에 비해
앞서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난 20여 년간 오늘 여기
계신 불교계 스님들과 재가 전문가들,
그리고 자비구현의 일념으로 부단하게
복지 현장에서 고군분투 해 주신
여러분과 묵묵히 불교자원봉사활동에
매진해 주신 신도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각별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대승보살은 부처님 경지에
이른 후에 홀로 열반의 세계에 가서
유유자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원력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사회복지 실천가입니다. 대승 보살의
수행목표는 나와 함께 온 중생이
모두 성불하여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있고, 우리 불교사회복지의 분명한
지향점 또한 이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이신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
단체 대표자이신 여러분이 이와 같은
대승보살정신으로 원력을 세워 복지**

사업의 지도적 역량을 발휘해 행복이 넘치는 불국정토, 복지사회로 화현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귀한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10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